

## 跳躍하고 있는 昌原大學

朴 東 和

(昌原大 學長)

### 1. 跳躍을 준비한 昌原大學

#### 1) 國立 4 年制 大學으로의 胎動

한국인의 發展指向의 價値觀과 지난 開發年代 이후의 國家政策은 教育에 대하여 아주 높은 기대를 갖게 하였다. 특히 國家發展에 대한 教育의 공헌도가 지대하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짐에 따라 모든 국민들의 관심의 초점이 高等教育에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本 大學도 地域民들의 깊은 관심 속에 馬山大學으로 출범한 이래 1983 年 한국 기계 공업의 중심지이자 慶南道廳 소재지인 창원시 봉림산록 일대 27 만여 평 규모의 새 캠퍼스로 신축 이전한 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1990 年 6 月 현재 6 개 學部, 33 개 學科와 大學院이 설치되어 綜合大學으로서 기틀을 다지고 있다.

그런데 本 大學은 初等敎員 양성을 위해 1969 年 馬山敎育大學으로 출발하였으나, 1976 년에 同 大學이 폐교되면서 전환점을 맞는다. 곧이어 地域社會 開發委員會, 地域商工會議所, 馬山自由輸出地域과 昌原工團 企業體協議會, 青年會議所 등의 諸機關 기관과 대학측의 敎授會에 의해 國立馬山大學 설립이 추진되었다. 本 大學은 1978 年 馬山初級大學으로 개편되었다가 고급 인력의 육성 배출을 바라는 慶南道民들의 여망에 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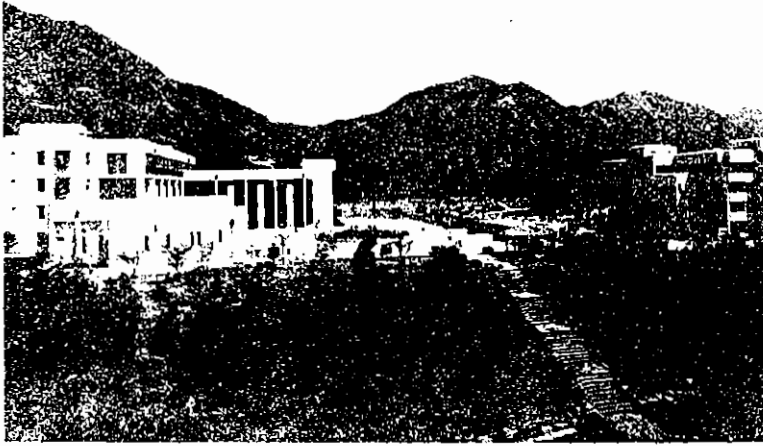
어 4 年制 國立大學인 馬山大學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이는 바로 地域社會의 愛鄉運動과 產學協同精神의 결정체로서 地域社會 속에서 本 大學이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昌原캠퍼스로의 이전과 昌原大學으로 改名

本 大學은 愛鄉精神의 결집으로 웅장한 첫 걸음을 내딛긴 했으나, 馬山大學이 위치한 경남 마산시 가포동은 부지 면적이 좁은데다 각종 교육 시설 및 교육 지원 시설이 大學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 수 있는 입지 조건으로는 부적합하였다. 그리하여 1980 年부터 馬山大學 綜合發展 基本計劃을 수립한 후 새로운 適地로의 大學移轉計劃을 구상하였다.

드디어 1983 年 1 月 30 日 昌原都市計劃地區의 외곽에 위치한 웅장한 봉림산을 배경으로 한 창원시 사림동 9 번지 봉림산록 일대 27 만여 평 규모의 새 캠퍼스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1983 年 2 月 19 日 새 캠퍼스에서 제 1 회 卒業生을 배출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昌原은 55.2km<sup>2</sup>의 광활한 터전 위에 機械工業의 핵심 부문이 망라되어 있는 機械工業工團의 中心地이자 慶南의 首府都市이다. 本 大學은 웅비하는 昌原地域에 걸맞게 發展指向의으로 현재의 昌原大學으로 改名하여



◀ 국립[昌原大學은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고급 인력 확보, 産·學·硏과의 연계 구축, 전문적인 교육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에 이르고 있다.

### 3) 地域發展을 이끄는 昌原大學

本大學의 입지 여건을 살펴 보면, 昌原市는 慶南의 敎育·行政·文化·經濟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慶南의 주요 거점 지역인 6개市, 7개郡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동일 생활권인 昌原, 馬山, 鎭海 3개市의 인구는 약 100만 명이고, 고등학교 수는 30여개를 넘고 있다. 특히 本大學은 한국 기계 공업의 요람인 昌原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 규모의 研究所 및 우수한 産業體와 産·學·硏 協同體制를 형성하고 있다.

本大學은 人文·社會系列의 확충에 이어 理工系列 特性化 大學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韓國機械研究所, 韓國電氣研究所, 昌原技能大學 등과 자매 결연을 맺어 學·硏의 연계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工團의 産業體와도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이를 교육과정, 실험·실습 그리고 졸업생 진로와 연결시키고 있다. 나아가 學問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국가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미국 사우스웨스턴大學 및 저지市 州立大學과 자매 결연을 맺어 敎授와 學生의 상호 교류 및 학습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90년 11월에는 서울에서 저지市

州立大學의 亞細亞問題研究所와의 共同主催로 公害問題 심포지움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

## 2. 機構 및 敎育內容

本大學이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하고 연구·개발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1979년에 출발한 이후 1990년으로 8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90년 6월말 현재 6개 學部, 33개 學科, 모집 정원 1,250명, 大學院 7개 學科, 모집 정원 81명으로 총 재적생이 5,812명으로 소위 單科大學의 규모로는 국내에서 가장 크다.

교직원 현황은 大學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1979년에 불과 66명(전임 교원 27명)이었으나, 1990년 6월 현재 384명(전임 교원 180명)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방대한 규모에 따라 本大學의 組織도 全體 敎授會議, 敎務委員會議 그리고 學部長會議을 정점으로 大學의 中·長期 敎育 및 施設計劃에 관한 중요 업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企劃委員會가 있다.

대학 본부 산하에는 敎務課, 學生課, 庶務課 등의 3개 課와 그 밑에 16개의 係, 大學院에는 제반 학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敎學課가 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전자계산소, 보건진료소, 대학신문사, 교육방송국, 박물관, 기숙사 등 7개의 부속 기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本大學은 1990년 6월말 현재 6개 학부에 33개 학과이며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人文學部

人文科學의 연구와 교수 활동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專門人, 사회의 각 분야에서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人格人,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니고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 갈 民族知性을 양성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관련 연구소로는 語學研究所가 있으며, 현재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교육학과 등이 설치되어 있다.

#### ·法政學部

法學과 行政學의 이론과 적용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순수한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한 법조인과 고급 행정가를 비롯한 사회의 중견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현재 法學科와 行政學科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련 연구소로는 統一問題研究所가 있다.

#### ·經商學部

지리적으로 창원 공단 등 東南圈工業地域의 중심에 위치한 本大學은 국가의 經濟成長을 추진하고 현대 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經營人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제와 상업 분야의 최신 이론을 교수·연구하며 그 이론적 적용을 위하여 각 기업체와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실습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관련 연구소로는 勞使問題研究所, 產業經營研究所가 있으며 현재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등이 설치되어 있다.

#### ·理學部

창의적이고 개척적인 인간 자질을 바탕으로 하여 기초 과학 분야의 이론을 연구·교수하여 순수 자연과학 이론의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여 과학 입국의 정신을 구현하고 과학적인 고급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연구소로는 基礎科學研究所가 있으며 현재 수학과, 물리학과, 전자계산학과, 화학과, 생

물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체육학과, 통계학과 등이 있다.

#### ·工學部

경제 발전에 기반이 되는 產業技術과 未來尖端產業을 선도해 나갈 工學分野에 관한 이론과 응용을 연구하고 실험·실습을 병행하여 산업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技術人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창원 공업 단지 내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및 창원기능대학 등과 產·學·研 協同을 위한 자매 결연을 맺어 교수 인력 교류, 실험 설비 이용 등을 상호 협동하고 있다.

관련 연구소인 產業技術研究所를 통하여 지역 산업체들과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재료공학과, 산업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환경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공업화학학과 등이 설치되어 있다.

#### ·藝術學部

음악과는 음악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광범위한 이론 강좌, 실제 음악 활동을 위한 오케스트라와 창작 활동, 각종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미술학과와 산업디자인학과는 안으로는 자기 성숙과 예술가로서의 자질을 연마·함양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산업 도시의 정서 문화 향상과 지역 사회 문화의 중추로서 지위를 굳혀 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 本大學 學科 構成의 특징은 人文 대 自然의 비율(12:19)이 국가가 지향하는 대로 적절히 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東南圈工業地域의 잠재적 人力需要를 반영하여 經商系와 理工系에 중점이 두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本大學의 부설 연구소 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서 產業經營研究所, 勞使問題研究所, 產業技術研究所는 本大學이 우리나라 工業化의 전진 기지인 昌原工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90년대 이후 地方化時代에 產學協同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當面課題와 發展方向

#### 1) 綜合大學校로의 改編

本大學은 4년제 大學으로 전환할 때에도 慶

南道民들의 愛鄉精神에 크게 힘입었듯이 지금도 慶南道民의 大學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學校의 명칭이 慶南道廳 所在地의 명칭을 따랐을 뿐 현재 5,000여 명의 재학생들은 대부분 慶南 전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더구나 '90년대 이후 地方化時代를 맞아 지방의 균형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慶南 中·東部의 유일한 4년제 國立大學이며 慶南의 首府에 위치한 本大學의 발전은 慶南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本大學이 위치한 昌原은 명실공히 조국 근대화의 시범적 모형으로서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根幹을 이루어 왔으며, 馬山은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자유 무역 지대가 설립되어 貿易立國의 초석을 놓았을 뿐만 아니라 2천년대 地方貿易의 전진 기지가 되고자 항만 시설의 증설과 함께 國際貿易港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鎭海는 자동차 부품 공단을 비롯하여 기계 계열 산업의 공단 조성으로 그 잠재성이 아주 높다. 위 3개 도시는 실로 하나의 도시권을 이루면서 이들 도시로부터의 고급 인력의 잠재적 수요가 급증하리라 기대된다.

더우기 綜合大學으로 改編되지 못함에 따라 學校의 운영 체제는 물론 문교 예산 편성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 大學의 질적 향상과 교육적 기능의 원활화가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를 맞는 '90년대에 지역간 균형 발전과 고급 인력의 확보, 産·學·研과의 연계 구축, 전문적인 교육의 확보를 위해 地域社會는 綜合大學의 조속한 改編을 바라고 있다.

## 2) 內實있는 大學으로 發展

출범할 당시 6개 學科, 입학 정원 400명에 불과하던 本大學이 1990년 6월 현재 33개 學科, 입학 정원 1,250명으로서 量的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런데 本大學이 이같은 양적 확대에 따른 內實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理工系列의 경우는 실험·실습에 대한 豫算과 시설 양면에 있어서 크게 부족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本大學이 이제 綜合大學으로 改編됨과 더불어 내실 있는 大學으로 深化되기 위해서

는 기존의 설비 능력 위에서 가능한 한 大學院 學科의 증설, 특수대학원의 신설, 각종 연구소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3) 地方化時代를 이끌 人材의 產堂

'90년대 이후 地方化時代를 맞아 우리는 우리의 處地와 또 각자 자기의 소망에 부응하는 特色 있는 향토를 발전시켜 나갈 청사진을 제시해야만 하겠다. 그리고 이 청사진은 자기 향토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맡은 바 자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갈 때에만 실현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더우기 本大學을 지원하는 고교생의 규모에 있어서는 그 태반이 昌原, 馬山, 鎭海市에 所在하는 31개교와 忠武, 金海 등지의 13개 고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들 고교의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進學하지 않고 本大學에서 수학할 수 있게 될 때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에 대한 애착심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또한 지역에 있는 고급 인력들의 產學間 圓滑한 協助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있는 전문 인력의 재교육이 지속되어야 한다. 本大學에 인접한 창원 공단, 마산 수출 자유 지역, 김해·양산 공단, 남해 연공업 벨트 등에는 2,000여개에 달하는 產業體가 있다. 또한 道 단위 각종 기관과 단체가 창원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 이들 產業體와 각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고급 인력에 대한 재교육 기회의 확대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특수대학원의 신설이 절실하다.

이와 같이 지역 특성에 맞는 產學協同體制가 확립된다면, 大學의 財源確保의 自立度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상과 같은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本大學이 지역 사회와 바람직한 產學協同體制를 갖출 수 있다면,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人材의 產室로서의 기능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4. 21世紀를 바라보며

大學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근간이 될 지성인을 육성하는 최고의 교육 기관이다. 이러한 대명제에 입각하여 本 大學은 大學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며 지속적인 자아 개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재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本 大學은 21世紀를 바라보는 '90년대에 본격적인 지방 분권화 시대를 맞으면서 지식과 연구의 중앙 집중화로부터 벗어나 지방 교육과 문화권의 중심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慶南의 중심지이자 한국 기계 공업의 요람인 昌原에 소재한 국제 규모의 연구소 및 유수한 산업

체와 產·學·研 協同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本 大學은 늦게 출발하므로 인한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이것이 오히려 선진 대학의 제도적 미비점을 과감히 시정해 갈 수 있는 강점이 되기도 한다. 젊고 패기에 찬 本 大學 구성원들은 다가오는 21世紀의 정보화·세계화·국제화·첨단과학화 시대에 과감히 도전하면서 지방화 시대를 주도할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昌原大學이 지방 대학 육성 방향에 부응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루고 고급 인력의 지방 정주 기반을 조성하며, 효과적인 產·學·研의 구축이 가능하도록 綜合大學으로서의 政府支援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跳躍을 기대해 마지 않는 바이다.

\*